오려서 모아보세요

둘리 호기심 나라 〈200〉

?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비가 오면 무릎이 아파요?

! 기압 차이 때문이에요.

비가 오는 날은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관절 속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자극을 받아 통증도 더 심하게 느낀대요.

©DOOLYNARA

포켓몬 한자왕 〈674〉

포켓몬과 함께 한자를 배워요!

새포켓몬의 조상이라고 전해지는 **아켄**은 화석에서 **복원(復原)**된 포켓몬이랍니다.

復 原

회복할 복 근원 원

복원이란?
원래대로 회복함.

활용단어
復歸(복귀) 본디 상태나 자리로 다시 돌아감.
高原(고원) 보통 해발 고도 600미터 이상에 있는 넓은 들판.

아켄
타입 바위, 비행
분류 최초새포켓몬
키 0.5m **몸무게** 9.5kg

오늘의 한자를 함께 써 봐요!

復 原

©1997 Nintendo/Pokémon.

디보의 한국사 여행 Goryeo 〈199〉

Confusion in Munbeol aristocracy - Seogyeong Cheondo Undong of Myocheong 4

Injong gave up transferring the capital to Seogyeong but Myocheong didn't. Thus, Myocheong rose in revolt in Seogyeong. However, Gwangun(the government army) led by Kim Busik suppressed the rebellion. Although Seogyeong Cheondo Undong of Myocheong ended in failure, it is a good example to show an independent spirit of people in Goryeo. Sin Chaeho, a historian, set a high value on the independent spirit of people in Goryeo and explained that Seogyeong Cheondo Undong was one of the greatest events in Korean history.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4

인종이 서경 천도를 포기했지만 묘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 반란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고려인의 자주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높이 평가해 서경 천도 운동을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Quiz Both Injong and Myocheong gave up transferring the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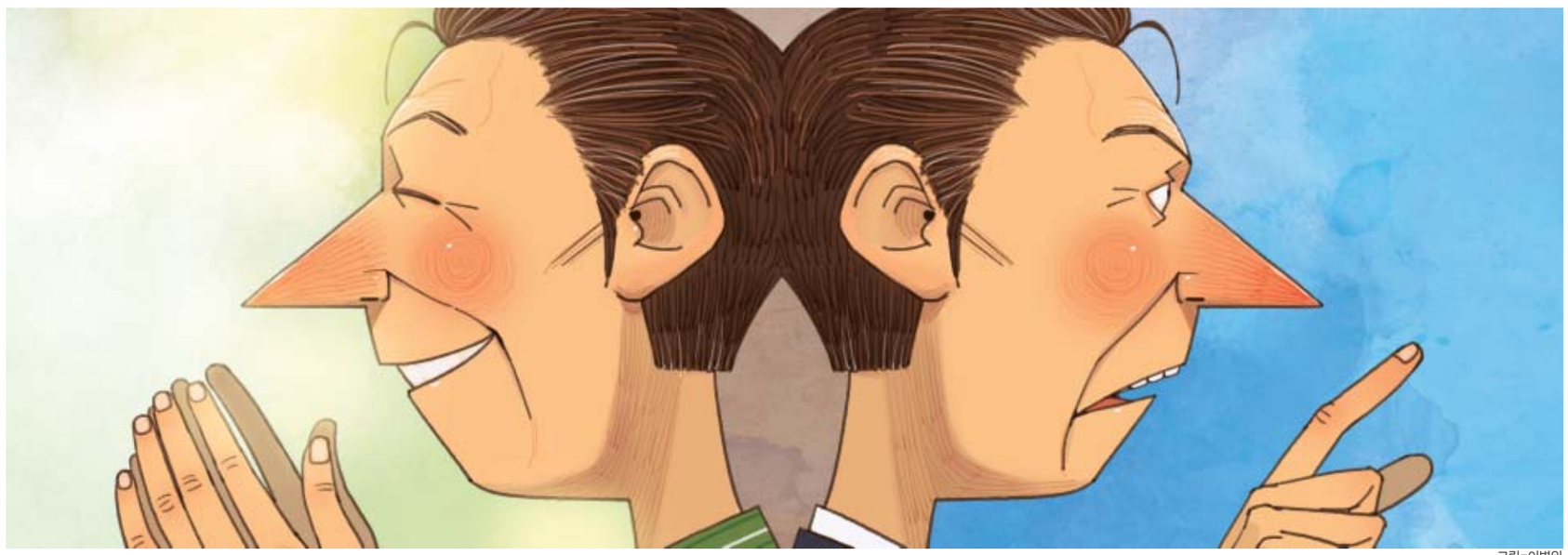
ⓐ True ⓑ False

답 ⓐ

제공 박정 어학원 www.pjenglish.com | © OCON Inc. All Rights Reserved.

고전은 내 친구 〈40〉라인홀드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혼자선 도덕적, 모이면 비도덕적?



그림=이병익

소각장·원자력발전소 꼭 필요하지만 동네에 생긴다면 좋아할 사람 없지요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면 니부어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주장 개인윤리와는 다른 집단 이기심 비용·혜택 균등하게 이뤄질 때 해결

조선일보DB

마을 주민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 하나

평소 마음이 넉넉하고 좋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네요.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말을 전하자, 대통령이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가지세요. 마음이 불편하시도록 하면 안 되겠죠.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한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에 다시 발붙일 수 없겠지요?

#이야기 둘

아버지는 아주 엄한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셔야 하지요. 하루는 하굣길에 아버지와 교문에서 만나 집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나오다 보니 약속한 시각보다 3분 정도 늦었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시기에 혼자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니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날부터 저와는 어떤 대화도,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야기 하나의 대통령은 사회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개인윤리적으로 행동했어요. **이야기 둘**의 아버지는 개인윤리를 적용해야 할 때에 사회윤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고전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한 라인홀드 니부어(R. Niebuhr)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인간 본성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있습니다. 니부어가 사용한 '도덕적'이라는 말은 곧 '이타적'이라는 의미이며,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전의 제목을 다시 쓰면 '이타적 인간과 이기적 사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기심과 이타심이란 두 마음은 인간 안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종교로 교화해 이타심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고양하고 이기심을 통제해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어느 쪽의 의견이 맞든, 개인은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이는 개인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나 국가와 같은 조직은 다릅니다. 집단은 개인이 모여서 구성되지요. 집단이 되는 순간, 그 속에는 이기적 행동에 제약을 가할 양심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길을 혼자 걸을 때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왠지 꺼려지지만, 쓰레기가 마구 쌓여 있는 곳에 친구들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무렇지 않았던 적 있나요?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은 조직 역시 개인처럼 종교나 교육을 통해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니부어의 생각은 달라요. 조직이 움직이는 원리는 개인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개인윤리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것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사회윤리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영역을 혼동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서 본 **이야기 하나**와 **이야기 둘**에서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단의 비도덕성, 즉 집단 이기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니부어는 '힘(power)' 뿐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 자체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더 큰 이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집단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입니다.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원자력발전소가 생긴다고 하면 마냥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성을 통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에는 비용은 치르지 않고, 혜택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무임승차자'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늘 비용만 치르고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요. 이런 경우 경제적 원칙에 따라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비용 없이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거둬들여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겠지요.

여러분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로서의 역할과 학급회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는 때는 없었나요? 개인윤리의 영역과 사회윤리의 영역을 예리하게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 판단하고 행동할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중용의 도를 잘 아는 사람이지요. 사회윤리에 너무 비중을 두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평을 받는 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개인윤리에 치우치면 '사람은 좋으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나약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문제 중에는 개인이 저지르는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직과 조직 간 갈등으로 생겨나는 문제일 때가 잦고, 이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지요. 이때 조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면, 조직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윤리의 영역과 개인윤리의 영역을 움직이는 원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힌 니부어의 입장을 익히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적인 지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진훈·MSC 브레인컨설팅 대표

예림당 02)566-1004
Why? 시리즈를
CJ 오쇼핑에서 만나 보세요!
| 과학 + 역사 + 인문사회교양 + 피플 + 인문고전 |
7월 29일(월)
AM. 10시 20분

고전을 읽읍시다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이 모여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난다"

※다음은 **라인홀드 니부어**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원문 중 일부입니다. 위의 글을 읽고 다음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개개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①)이다. 그들은 본성상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심을 갖고 있다.(중략) 그러나 이 모든 성과는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서는-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하기 어렵다.(중략)

모든 인간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중략) 집단의 도덕이 이처럼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적 충동들-사회는 이 자연적 충동들에 의해 응집력을 갖는다-에 버금갈 만한 합리적인 사회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오직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집단 이기주의(group egoism)의 표출이기도 하다.(중략)

따라서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②)이다. 즉 그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 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진 (③)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중략)

사회적 갈등과 불의의 궁극적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자애심을 증대시켜 정의를 세우려는 바람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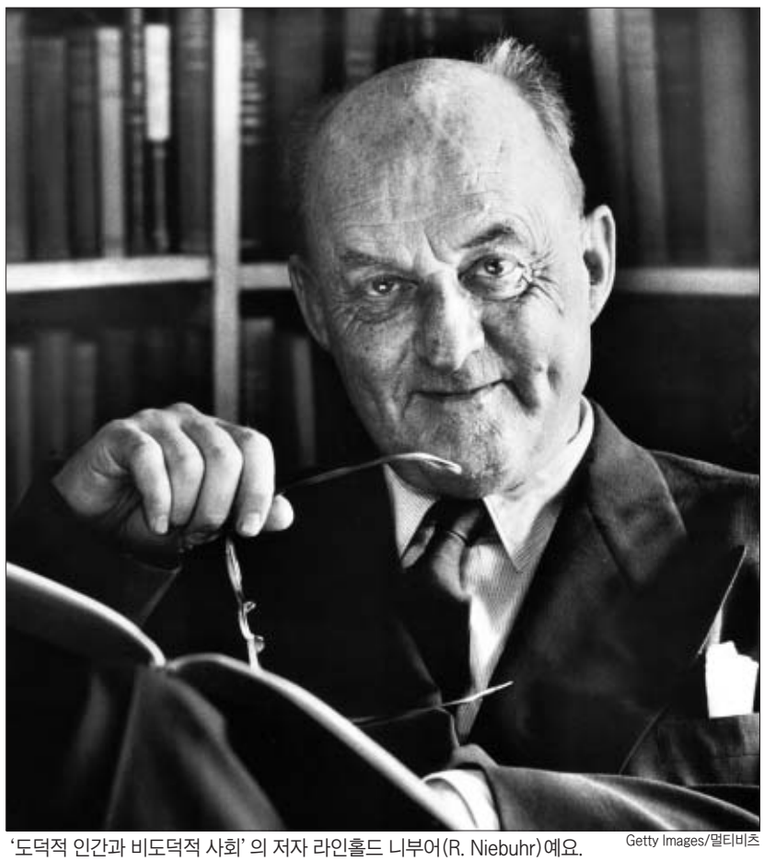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중략)

종교적 이상주의를 채택할 경우, 이기적 충동에 대해 강력한 내면적 억제를 가하려는 집단과 사회적 억제를 가하려는 집단을 화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로 화합되기 힘든 이 두 방법을 억지로 소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도덕에서의 솔직한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러한 이원론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원론은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판단과 타인에게 적용되는 판단을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기대하는 것과 집단에 기대하는 것을 구별하기 때문이다.(중략)

개인적 양심이란 이름하에 국가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종교적 심성을 가진 평화주의자들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 계급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권력의지를 조절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중략)

인간 생활의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중요성을 갖느냐 아니면 사회적 투쟁의 필연성이 중요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①도덕적 ②정치적 ③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저자 라인홀드 니부어(R. Niebuhr)예요. Getty Images/멀티비츠

고전 1분 퀴즈

1. 니부어는 집단 이기주의 문제를 ( )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 )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2. ( )윤리의 영역과 ( )윤리의 영역을 예리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기준이 있어야 해요.

정답: 1.힘, 정치 2.개인, 사회

요일별 순서

월: 고전은 내 친구
화: 재미있는 과학
수: 개념쏙쏙! 수학
목: 이명옥의 명작 따라잡기 미술관에 갔어요
금: 숨어있는 세계사

※ 목요일은 격주로 연재됩니다.

알립니다

'신문은 선생님' 지면의 지난 호는 모닝플러스(morningplus.chosun.com) 사이트의 '신문은 선생님' 코너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